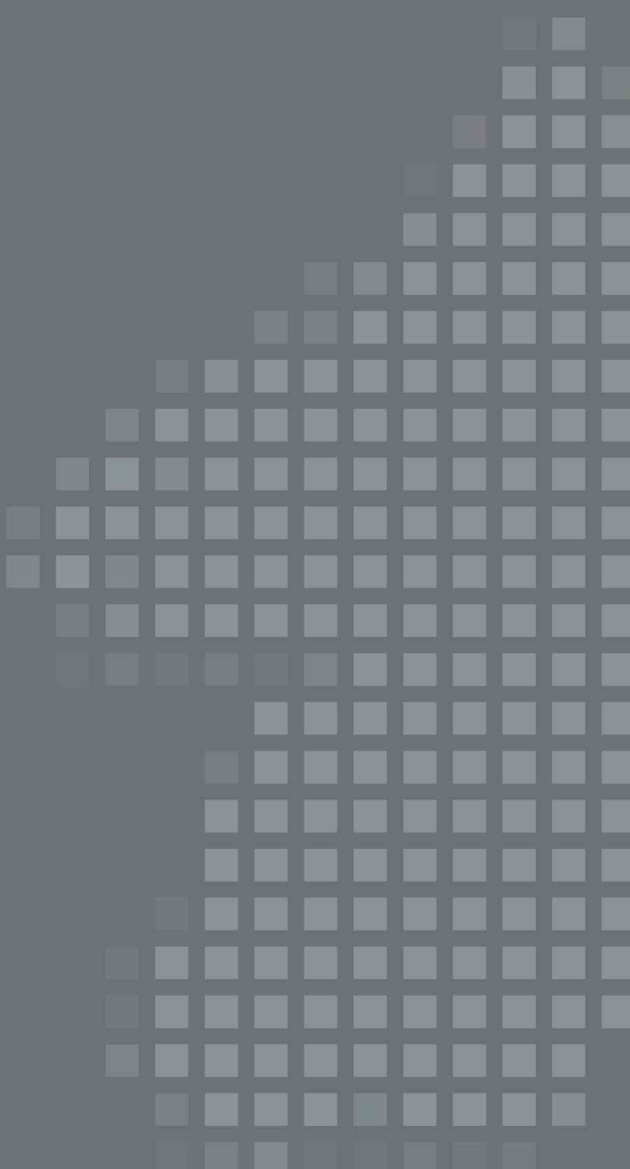




부문별 주요 기사

12월 1일~12월 31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남북교류

부문별 주요 기사

12월 1일~12월 31일

대내경제 105

<식량 및 영양>

북한 식량상황에 대한 상반된 평가

북한 농업개혁의 한계

<에너지>

자연 에너지의 이용 확대

<관광>

신의주 경제특구에 새로운 관광지 개업

<기타>

25년만에 개최된 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현대화공사가 마무리 된 김책제철소

대외경제 109

<대북지원>

WFP, 대북 식량 지원 감소

<대외무역>

급감하는 북한의 대외무역

<해외 노동자>

러시아로 파견된 4만여명의 북한 해외 노동자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남북교류 112

〈인적교류〉

2015년 들어 크게 증가한 남북 인적교류

대내경제

<식량 및 영양>

연합뉴스(12.1), 노컷뉴스(12.4), The Diplomat(12.18), Radio Free Asia(12.21)

북한 식량상황에 대한 상반된 평가

2015년 북한 식량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음.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2015년 상반기 가뭄의 여파로 북한의 식량 생산이 14% 가량 감소하여 1.5백만톤 가량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FAO는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015년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3개 식량부족 국가로 재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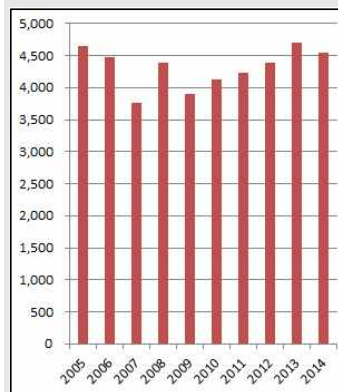
반면 마커스 놀란드와 같이 북한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제기구의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함. 북한 식량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2010~13년 기간 동안의 생산량 증가가 오히려 이례적이었던 것이며, 2014년부터 생산량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그 수준이 우려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함.

북한 내부의 소식통도 2015년 수확은 비교적 좋다고 전하며, 날씨가 농사에 적합하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농민들이 펌프와 기타 농업장비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지켜냈다고 함.

북한 농업개혁의 한계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전반적인 농업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음. 2012년 ‘6·28조치’를 통해 생산물의 30%를 농민이 소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

<북한의 쌀 및 감자 생산량>



자료: FAO.

지 않고 있어 여타 지역의 농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음.

결과적으로 2015년 북한의 식량 사정은 그리 우려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재 북한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농업개혁은 북한의 전반적인 농업 생산성을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됨.

<에너지>

조선신보(12.7)

자연 에너지의 이용 확대

북한의 각 기관 및 기업소들이 전력수요의 일부를 풍력, 태양빛, 지열 등을 이용하여 충족시키고 있음. 「조선신보」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에너지기술경제연구실 현은희 연구원의 말을 빌려 2000년대부터 자연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이 본격화되었으며, 김정은 집권이후 그 도입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함. 북한에서는 2013년 재생에너지법이 채택되어 해당 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함. 본 법률에서는 자연에너지를 통해 획득한 전기는 기본적으로 해당 단위에서 쓰게 되며 남은 전기를 다른 단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의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라 해당 예산이 태양빛 전지판이나 지열펌프 등을 도입 및 설치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자체의 자금으로 설비를 설치하는 단위도 있음.

<관광>

NEWSIS(12.23), NK News(12.23),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12.29), 조선일보(12.31)

신의주 경제특구에 새로운 관광지 개업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의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12월 20일 신의주 압록강변에 조성된 관광특구가 영업을 개시했다고 함. 이 관광특구는 북한의 조선묘향산여행사와 중국의 단둥중국국제여행사가 협력해 건설했으며, 현대적인 종합봉사기지가 꾸려졌다고 전해짐. 면적은 13만m²이며 지난 4월 이후 5,000만위안(약 90억원)이 투입됐음.

중국인 관광객은 관광특구에서 하루 동안 무(無)여권·무(無)비자로 면세 쇼핑과 북한 음식 및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함. 원래 중국인이 단둥에서 북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 4일 전에 출입국 당국에 여권을 맡기고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신의주 관광특구에는 당일 중국 신분증만 들고 단둥公安부서에서 통행증을 받으면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출입이 간편해 졌음. 다만 북한 군인이 관광특구와 신의주 시내를 연결하는 길목을 막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북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함. 또한 현재 해당 지역에 숙박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일 여행만 가능함. 추후 서구의 관광객들에게 해당 지역을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언제가 될지는 미정임.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단둥에서 북한여행을 시작한 이래 누적 관광객수 58만명이며, 이는 중국 전체 북한여행객 중 85%이상을 차지한다고 함.



〈기타〉

로동신문(12.14), 연합뉴스(12.14), 노컷뉴스(12.15), 환구시보[环球时报](12.15)

25년만에 개최된 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지난 12월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가 진행됨.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기간 재정은행사업에서의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하고 향후 과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이 자리에서는 나라의 재정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화폐 유통을 공고히 하는

것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과업이라고 밝힘. 또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가예산을 정확히 하고 예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며 기업체들의 재정관리와 화폐유통사업을 개선하고 금융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 강조함. 이날 보고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인 로두철에 의해서 진행됨. 그는 국가예산의 기능과 역할이 높아지고 나라의 재정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으며 1990년에 비하여 국가예산 수입이 3배로 증가하고 국가예산은 나라의 방위력 강화, 경제발전, 인민 생활향상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함.

이번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는 과거 1990년 9월 개최된 이후 25년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것임.

현대화공사가 마무리 된 김책제철소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주요생산공정의 현대화공사가 14일 마무리 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함경북도 청진시에 위치해 있으며 공장 부지면적이 약 430만 m^2 (약 130만평), 근로자가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현대화작업으로는 열간압연공장의 CNC(컴퓨터수치제어)화가 진행되었다고 함.

대외경제

〈대북지원〉

Voice of America(12.1)

WFP, 대북 식량 자원 감소

WFP(유엔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원이 세 달째 감소하고 있음. UN 지역 대변인에 따르면 11월 대북 식량지원은 1,820톤으로 10월에 비해 5%가량 감소하였다고 전함. WFP는 8월 이후 기금부족으로 인해 대북 식량지원을 줄이고 있으며, 만톤을 180만명에게 분배한다는 목표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수준임. 뿐만 아니라 2014년 2월 이후 WFP가 운영하는 7개의 영양 비스킷 공장 중 5곳이 폐쇄된 상황임.

〈WFP 비스킷 공장 현황〉

- 함경북도 청진시(운영)
- 양강도 해산시(운영)
- 평안북도 신의주시(폐쇄)
- 평양시(폐쇄)
- 황해남도 해주시(폐쇄)
- 강원도 문천시(폐쇄)
- 함경남도 함흥시(폐쇄)

자료: Protracted Relief and Recovery Operation (PRRO) 200532 "Nutrition Support for Children and Women" in DPR Korea.

〈대외무역〉

연합뉴스(12.2), 헤럴드경제(12.9)

급감하는 북한의 대외무역

북한 대외무역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중무역이 2015년에 들어 하락했다고 전해지는데 이어 다른 나라와의 무역 또한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보도됨. 먼저 「미국의 소리」는 코트라 통계 자료를 인용해 2015년 3분기까지 북한과 태국의 무역이 6천 276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4% 줄었다고 보도함. 태국의 북한에 수출하는 주품목인 고무의 수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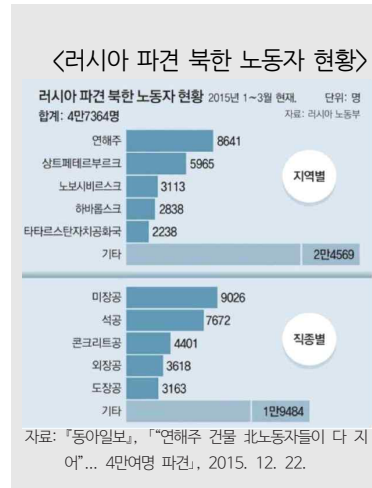
「미국의 소리」는 또한 미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2015년 1~10월 북미 간 무역이 460만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에 불과하다고 전함. 이 금액은 전액 미국이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대부분 미국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것임. 미국은 대북제재 목적으로 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모두 물품의 대북무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해외 노동자〉

동아일보(12.22)

러시아로 파견된 4만여명의 북한 해외 노동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가운데 러시아로 들어간 북한 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도됨. 러시아 노동부가 내놓은 외국인 고용허가증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3월 러시아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북한 노동자는 4만 7364명으로, 2014년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한 규모임.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에서 미장공, 콘크리트공 등 주로 건설업에 투입된다고 함.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노컷뉴스(12.2, 12.9, 12.11, 12.15, 12.16, 12.22, 12.24, 12.30, 12.31), 아시아경제(12.10), news1(12.16), 헤럴드경제(12.18, 12.23), 국민일보(12.31)

아래 표는 12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태국 (정부)	2015년	지원금	2만 6천달러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기부 태국의 첫 WFP 지원
아일랜드 (정부)	2015년	지원금	26만 5천달러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기부 2013년 7월부터 아일랜드 정부는 지금까지 약 90만달러 지원
러시아 (정부)	2015년	지원금	300만달러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기부 총 900만달러 지원으로 러시아는 2015년 북한 최대 지원국 위치에 오름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	2015년	지원금	865만 스위스프랑 (870만달러)	주로 분유지원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영국 (셸터 박스)	2015년 말	텐트 구호상자	400개 500개	약 38만달러 상당 지원 나선(홍수피해 지역)
FAO	2016년 초 예정	지원금	15만달러	'산림경관 복원 메커니즘'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북한 산림 복구사업 지원
한국 (한미약품)	2015년 12월 15일	의약품 (어린이비타민 및 종합감기약 등)	10억원 규모	평양에 소재한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지원
독일 (세계기아원조)	2015년	지원금	83만달러	재난감소 사업
		산간농법 전수	-	향산군 1,500가정 지원
UN (WFP, 유니세프 등 5개 기구)	2015년	지원금	10만달러	수해복구자금 (비스킷, 보건의료세트, 학용품 등 지원)
리히텐슈타인 (외무부)	2015년	지원금	10만달러	WFP에 기증
캐나다 (퍼스트 스텝스)	2015년 12월 26일	영양소가루	180만포	이를 포함해 2015년 메주콩 200톤 및 스프링클스 480만포 등 60만캐나다달러 상당을 지원함
미국 (그리스도인 벅들)	2015년	지원금	570만달러	2014년: 510만달러 지원

남북교류

〈인적교류〉

연합뉴스(12.29)

2015년 들어 크게 증가한 남북 인적교류

‘8·25’ 합의를 계기로 남북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올해 방북 인원(개성공단 및 이산가족 상봉 제외)이 작년 대비 네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따르면 2015년 방북 인원은 2,035명(104건)으로 작년 552명(55건) 대비 3.7배 증가함.

〈방북 인원 추이〉

(단위: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방북 인원	6,211	1,612	240	212	552	2,035

자료: 통일부, 통계자료.

정리 | KDI 북한경제연구부 | kseulki86@kdi.re.kr

기사 원문 리스트

- [2015.12.01] WFP 대북 식량지원 3개월 연속감소...자금부족 탓 **(연합뉴스)**
- [2015.12.01] WFP Aid for N. Korea Drops Again **(Voice of America)**
- [2015.12.02] 英 NGO, 北 나선지역에 38만 달러 상당 텐트 등 지원 **(노컷뉴스)**
- [2015.12.02] 북한-태국 올해 무역 28% 감소 **(연합뉴스)**
- [2015.12.04] FAO,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 **(노컷뉴스)**
- [2015.12.07] 자기 단위 전력수요를 자체로 해결: 확대되는 자연에너지의 리용 **(조선신보)**
- [2015.12.09] How Bad is North Korea's Food Situation? Getting a Grip on the Numbers Confusion **(38 North)**
- [2015.12.09] “올해 북미 교역액 급감.. 지난해 21% 수준” **(헤럴드경제)**
- [2015.12.09] 태국, WFP에 대북 식량 2만6천 달러 첫 지원 **(노컷뉴스)**
- [2015.12.10] FAO, 북한 산림복구사업에 15만달러 지원 **(아시아경제)**
- [2015.12.11] 아일랜드, WFP 대북 사업에 26만 5천 달러 지원 **(노컷뉴스)**
- [2015.12.14] N. Korea hosts 1st bankers' meeting in 25 yrs **(연합뉴스)**
- [2015.12.14] 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진행 **(로동신문)**
- [2015.12.15] 北 김책제철, 주요생산 공정의 현대화공사 완공 **(노컷뉴스)**
- [2015.12.15] 러시아, WFP 대북 식량지원에 300만달러 기부 **(노컷뉴스)**
- [2015.12.15] 朝鮮要成为财政强盛大国 金正恩：加强银行工作 **(한구시보[環球時報])**
- [2015.12.16] 한미약품, 북한에 10억 규모 어린이 의약품 전달 **(news1)**
- [2015.12.16] 스위스, 올해 북한에 870만 달러 지원...지난해 보다 25%↑ **(노컷뉴스)**
- [2015.12.18] The Limits of Agricultural Reform in North Korea **(The Diplomat)**
- [2015.12.21] North Korean Authorities Fail Again to Distribute Crops Promised to Farmers **(Radio Free Asia)**
- [2015.12.22] 독일정부, 북한 재난감소 사업에 83만 달러 지원 **(노컷뉴스)**
- [2015.12.22] “연해주 건물 北노동자들이 다 지어”... 4만여명 파견 **(동아일보)**
- [2015.12.23] North Korea opens new tourist zone at Sinuiju **(NK News)**
- [2015.12.23] “유엔, 북한에 수해복구자금 10만 달러 지원” **(헤럴드경제)**
- [2015.12.23] 北, 신의주 압록강변 관광지 개업 **(NEWSIS)**
- [2015.12.24] 유럽 '리히텐슈타인', "대북 영양 지원에 10만 달러 기증" **(노컷뉴스)**
- [2015.12.29] 올해 방북인원 2천35명...작년 대비 3.7배 **(연합뉴스)**
- [2015.12.29] 中国赴朝鮮登岸游开园 游客出入境不需办理护照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2015.12.31] 독일 NGO, "북한 1천500 가정에 산간농법 전수" (노컷뉴스)

[2015.12.31] 美 '조선의 그리스도인 벼들'..."올해 北에 570만 달러 지원" (노컷뉴스)

[2015.12.31] 캐나다 구호단체, 北에 영양소가루 180만포 지원 (국민일보)

[2015.12.31] 北 신의주에 '중국인 無여권 관광특구' 문 열어 (조선일보)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히 드립니다.